

루터의 종교개혁

馬 碩 漢*

머리말

1. 16세기의 유럽
2. 루터의 종교개혁
3. 루터의 개혁 사상

4. 종교개혁의 영향

5.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
- 맺음말

머리말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유럽에서는 중세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로마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의 교회 대신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하나의 신학 대신에 여러 신학 이론들이 성립되었다. 유럽에서 교황의 절대권을 거부하는 종교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학에서 16~18세기를 일반적으로 근대 초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까지의 유럽을 신분제 농업사회로 규정함으로써, 신분제 사회를 탈피하고 평등을 추구하려던 그 이후의 산업사회와 구별하고 있다. 초기 근대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생활에는 여러 면에서 고대와 중세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던 반면, 19세기와 20세기의 토대를 준비한 시기이기도 하다. 종교개혁 시대의 정치적·종교적 갈등 속에서 종파와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유럽사회가 태동하고 있었다.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제국과 정치적·종교적으로 분리하여 독자적 정치중심체로 발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

* 용인대학교 강사·철학박사

듯 중세의 많은 분야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은 주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 문제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 교회는 인간에게 구원을 전해 주고, 교회의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를 규정하고 있었다. 제국과 지방 영주와의 정치적 갈등, 신분 계층 간의 불신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위기 요소(인구증가, 물가상승,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가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종교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스도교가 통일된 문화를 이루며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정치와 사회 및 세속적 생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신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다양한 요소가 서로 얽힌, 즉 종교적 모순과 세속적 대립관계가 상호 작용하며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마틴 루터에 국한하여 종교개혁의 초기 모습을 살펴보고려고 한다. 16세기의 종교개혁에 대한 연구는 루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루터의 기본 사상을 당시 기록 속에서 추적해 보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를 대표적인 연구 결과 중심으로 정리·소개해 보고자 한다.

1. 16세기의 유럽

16세기 유럽사회는 출생 신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 혈통 중심의 사회였다. 경제 상태나 계급뿐만 아니라 법적·정치적 지위도 출생과 더불어 구분되는 사회였다. 즉 성직자, 귀족, 시민, 농민 등 모든 신분에 위계적 서열이 주어져, 신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 생활방식 및 직업까지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거나, 성직자의 길을 택하거나 신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신분의 유동성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그나마 하위 신분 계층에게는 그 기회마저 거의 없었다.

신분제 사회와 더불어 공동체 생활이 당시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예를 들면, 대가족 중심의 생활과 동업 조합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시민계급은 자신을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된 '도시시민'으로 자각하고 있었으며, 농민계층도 스스로 자기 고장의 '마을 농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귀족계층도 봉토를 중심으로 '우리'라는 집단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집단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농촌, 도시, 상인 길드, 동업조합은 그 구성원의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동체의 長은 정치, 교육, 종교 및 결혼 등 생활 전반을 결정하였고, 가족 구성원은 이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타 집단과의 교류 폭을 제한하고, 나아가 상호 견제와 반목의 폐쇄적 분위기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는 비단 공동체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던 까닭에 여성은 종교적·법적·경제적으로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14세기 초반 기상 이변과 병충해로 인해 흉작이 계속되어, 농민의 대부분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 더구나 1348년에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유럽 인구를 절반 이상 감소시켰다. 인구의 격감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임금상승을 자극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노동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1470년 이후부터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독일의 경우 1470년대 전체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560년에는 400만 명이 증가하였고, 1618년에는 1,600~1,700만 명에 이르렀다. 더구나 같은 기간 동안 함부르크(Hamburg), 단찌히(Danzig)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와 같

은 무역도시의 주민 수는 두 배 넘게 증가하였다. 당시 유아사망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0.6%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14세기와 15세기의 인구감소로 곡물에 대한 수요도 함께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바로 농작물에 대한 가격폭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도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들어 인구가 점증함에 따라 식량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곡물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다(가격혁명). 인구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이 풍부해짐을 의미하고, 이는 노동임금의 하락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물가는 상승하는 데 비해 임금은 반대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우그스부르크의 예를 보면, 이 곳에서 일하고 있던 수공업자는 1500년 무렵에는 당시 기준 임금(Ecklöhne)의 1.5배에 달하는 수입을 유지하였으나, 30년 후인 1530년에는 최저 생계비 정도의 임금을, 그리고 1600년에 와서는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 생계비의 75% 정도에 달하는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¹⁾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귀족계급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고급 귀족은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비교적 적응할 수 있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하급 귀족은 정치적·경제적 역할이 크게 위축되었다. 고급 귀족과 부유한 도시시민과 물질적으로 보조를 같이할 수 없었으며, 도시의 발달과 영주의 성장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16세기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있었다. 최소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예를 들면 농업작물의 수익이 줄어든 반면, 수확량의 1/3 이

1) Ernst Klett Schulbuchverlag, *Grundriss der Geschichte*, Bd. 1, Stuttgart, 1996, S. 229.

상을 영주에게 바치고 있던 까닭에, 바인가르텐(Weingarten) 지역의 195개 농장 가운데 겨우 75개 농장만이 적자를 모면하고 있었다.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영주들은 세금인상과 부역노동 등을 통해 자신들의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메클렌부르크(Mecklenburg)의 예를 보면, 1500년에 농민이 영주를 위해 일년에 3.5일 간 부역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1527년에는 3주에 하루로 부역 일수가 늘었고, 1550년에는 1주일에 하루, 그리고 1600년에는 주당 3일로 부역에 동원되는 횟수가 급증하였다.²⁾ 이렇듯 농민의 생활이 악화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농민생활의 궁핍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훗날 농민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농민의 상황과는 달리 14세기 이후의 경제적 변화는 시민계급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도시의 시민계급은 상공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중세 말의 사회적 변화에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가운데 인쇄술의 발달을 빼놓을 수 없다. 중세사회의 교육은 전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중세 말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과 도시 수공업자 간의 활기찬 접촉을 계기로 글쓰기와 읽기를 가르치는 학교가 곳곳에 등장하였다. 종교개혁 당시 전체 독일의 문맹률은 90~95%에 이르고 있었고, 극히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1/3 정도의 남자가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³⁾ 이렇게 높은 문맹률을 줄이는 데는 새로운 인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1500년경에는 1년에 고작 40여 권의 책이 인쇄되었으나, 1523년에는 498권이 출판되었다. 특히 이 498권의 출

2) ebd., S. 231.

3) R. Engelsing, *Analphabetentum und Lektüre*, Stuttgart, 1973.

판물 중 418권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처럼 서적 출판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 문제에 관한 논쟁이 책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종교개혁이 독일과 유럽에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 이후 지속되어 오던 스콜라 전통과 이에 맞서는 인문적 개혁운동이 유럽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인문주의자의 관심은 단순히 고전문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서와 교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사회와 종교를 그리스도교 초기의 모습과 비교하는 일에 열중하여, 당시의 종교가 초기 그리스도교 본래의 모습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루터의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전 유럽은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었다. 교황이 교회를 다스렸고, 모든 성직자는 교황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만 했다. 당시 교회는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까지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성직자는 결혼, 장례 등을 주관하였으며, 교육과 학교 설립, 빈민구호나 병자치료 등은 교회의 주요 임무였다. 일반인은 가톨릭에 대해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던 시대였다. 그들은 각종 종교 행사, 특히 성지순례에 적극적이었다. 끊임없는 기도, 헌금, 선행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국민이나 하급 성직자들의 종교적 욕구보다는 돈과 권력 그리고 예술활동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1517년 봄 이탈리아 출신의 성직자가 독일을 여행하며 느낀 점을 기록한 글과 같은 해 아우구스부르크(Augsburg)의 주교가 종교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 당시 교회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

다.

교회의 탑은 매우 높고 뾰족하다……각 교회는 거대하고 화려한 종을 갖고 있다. 작은 마을의 교회조차도 거대하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종을 갖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창문은 화려한 색유리로 장식되어 있다……사람들은 예배와 교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많은 교회들이 새로이 건축되었다……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⁴⁾

신부의 미덕과 높은 인격 대신에 오늘날 각종 악습들이 횡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을 나타내고, 사순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성직자]는 재산을 긁어 모으고 있다……주교와 성직자는 그리스도에 봉사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좋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고 있다. 이들의 식탁에는 최고급 술과 음식으로 가득 차있다……이들은 또한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다. 그 하인 가운데 일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일부는 마실 것을 준비하며, 다른 하인은 준비된 음식을 시식하고 있다……내가 이런 성직자가 많음을 보고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이들 성직자에게 있어 고독은 역겨운 것이고, 경건함, 복종, 겸손은 오히려 경멸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이러한 자들을 베드로는 신의 봉사자가 아니라 개와 같은 짐승에 불과하다고 하였다.⁵⁾

이러한 성직자들의 태도는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감정을 부추기고 있었다. 한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반인의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질수록, 교회나 성직자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플로렌스의 수도자 사보나롤라(Savonarola)가 당시 성직자에 대해 비

4) L. Pastor, *Die Reise des Kardinals Luigi d'Aragona durch Deutschland*, beschrieben von Antonio de Beatis, Freiburg/Br, 1905, S. 51f.

5) W. Andreas, *Deutschland vor der Reformation*, Stuttgart/Berlin, 1932, S. 81.

관한 내용을 보면,

성직자들이여 참회하라! 그대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라. 그대들의 화려함을 버리고, 예술가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연회를 중단하라. 그대들의 연인들도 돌려보내라. 수도자여! 거대해진 그대들의 수도원을 포기하라. 그대들의 수많은 옷과 은을 놓아 두거라. 수녀원이여! 수녀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돈을 받지 말라. 하찮은 물건, 화려함, 대규모 합창단 등을 포기하라.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풍요로움, 수많은 그림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는 중단하라. 그대들의 수도복을 값싼 천으로 만들고, 허리를 바싹 조이도록 하라.⁶⁾

사보나롤라의 연설은 단순히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종교적 각성의 소리만은 아니었다. 그의 연설은 당시의 막강한 가문으로 교회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메디치 가에 대한 비난도 함축하고 있었다. 1494년 프랑스 왕이 메디치 가를 플로렌스로부터 추방했을 때, 국민들은 사보나롤라를 신에 뜻에 따라 도시를 개혁하는 정의의 사자로 보았다. 사보나롤라는 이 도시국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면서, 가톨릭에 기초한 엄격한 법을 통해 사회나 개인의 생활에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교황 알렉산더 6세와 연합하여, 사보나롤라에게 모든 설교를 금지시켰고, 이어 1498년 이단자로 규정하고 화형식을 집행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개혁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에도 교회나 사회에 대한 개혁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이는 단지 소수의 지식층에게서만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사보나롤라가 화형을 당한 후 20년이 지나 개혁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6) Aus den Predigten Savonarolas um 1495, in : W. Rüdiger, *Die Welt der Renaissance*, Desch Verlag, München, 1970, S. 35.

교황은 새로이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교황은 돈을 기부하는 자에게 속죄를 약속하였다.

성직자들은 전 유럽을 돌아다니며 성당 건립에 기부할 것을 요구하였다.……성직자의 말에 따르면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죄부는 비단 돈을 기부한 자만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가족 친지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당시 유럽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성직자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도미니카 수도원의 테첼(Johannes Tetzel : 1465 ~ 1519)이었다. 그는 면죄부 판매의 흥행사였다. 그가 도착하는 도시에는 마치 서커스단 행렬이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테첼은 훌륭한 기부금 징수자였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혐오자로 비쳤다. 1517년 4월 비텐베르크(Wittenberg) 부근에 화려한 설교단을 대동하고 그가 도착하였다.……7)

루터(Martin Luther)가 머물고 있던 비텐베르크 도시의 사람들도 테첼로부터 면죄부를 구입하였다. 면죄부를 산 사람들이 루터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기대했으나, 루터는 이를 거부하였다. 비텐베르크 사람들은 테첼에게서 구입한 면죄부를 근거로 속죄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루터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가 판매하고 있는 면죄부가 허구임을 주장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를 담당하던 마인쯔 주교 알브레히트(Albrecht von Mainz)에게 면죄부의 오용을 금지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 교황의 면죄부가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사람들이 모금함에 돈을 넣자마자 곧바로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이를 믿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7) E. Simon, *Ketzer, Bauern, Jesuiten, Rowohlt Life* 36, Hamburg, 1973, S. 36f.

고로 나는 이런 옳지 못한 일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⁸⁾

그러나 알브레히트 자신이 면죄부 판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까닭에 루터의 요청은 무시되었다. 알브레히트는 기부금의 절반만을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몫으로 챙겨,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교황이 자신을 주교로 임명하는 대신 많은 돈을 요구하자,⁹⁾ 아우그스부르크의 大商 출신 후거(Jacob Hugger)로부터 빚을 얻어 주교 자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이다.

루터의 요청이 알브레히트에 의해 거부되자, 그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주교들에게 보내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직접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마틴 루터는 당시의 주교들이 참다운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서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 “면죄부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면죄부가 무엇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으며, 면죄부란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그 효능이 어느 정도인가”¹⁰⁾를 놓고 학자들과 토론하고자 하였다.

8) Martin Luthers Werke, *Briefwechsel*, Bd. 1, Weimarer Ausgabe, 1930, S. 111.

9) 교황 레오 10세(Leo X)의 지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1Gulden은 밀 217kg에 해당된다.

- 교황청의 군대 유지비 : 12,000Gulden(당시 교황청은 15,000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 군대병력은 20,000~30,000명 정도였다).
- 교황의 조카인 로렌초(Lorenzo)를 공작에 임명하기 위해 중부 이탈리아의 도시인 우르비노(Urbino)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쟁 비용 : 800,000Gulden
- 동생 결혼식 비용 : 150,000Gulden
- 행사와 축제 비용 : 96,000Gulden
- 교황청 도색 비용 : 3,600Gulden
- 그리스 서적 구입 비용 : 2652Gulden
- 레오 10세의 개인 부채 : 500,000Gulden

(H. D. Schmid, *Fragen an die Geschichte* Bd. 2, Frankfurt, 1975, S. 182).

10) F. Mykonius, “Reformationsgeschichte 1541/42”, in H. v. Junghans (Hrsg.), *Die Reformation in Augenzeugenberichten*, dtv-Verlag, München, 1973, S.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속죄하라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속죄 과정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속죄는 살아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 따라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성직자들이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돈이 모금함 속으로 떨어지며 소리를 내면 바로 그 순간 영혼은 하늘로 날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설교하는 것이다.……교회의 가장 참다운 보배는 신의 영광과 자비가 담긴 성서다.¹¹⁾

루터의 반박문이 발표된 후 몇 주 만에 그 내용이 전 독일에 알려지게 되었다. 테첼도 루터의 반박문을 읽고 광분하면서, ‘이 이단자는 3주 안에 내 앞에서 화형을 당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루터의 반박문은 로마에도 전해졌다. 교황은 단순히 수도승의 말다툼 정도로 여겼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서, 루터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철회시키도록 하기 위해 사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교회 비판이 성서를 토대로 한 근거 있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교황의 철회 요구를 거절하였다.

내가 성서, 교부, 교황의 칙서 또는 참다운 이성에 反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지금까지도 이성적이며, 참되고, 가톨릭적이다. 나는 그 어디서건 공적으로 나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¹²⁾

마침내 1519년 여름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공개토론이 개최되었

51f.

11) Aus Luthers Thesen vom 31. 10. 1517, In : *Geschichtliche Quellenhafte mit Überblick*. Heft 4/5, Diesterweg 7344, S. 48.

12) Acta Augustana 1518, in : *Die Reformation in Augenzeugenberichten*, a. a. O., S. 61.

다. 교회를 대표해서 잉골슈타트(Ingolstadt)의 에크(Eck) 교수가 루터와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에크는 모든 사람이 교황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절대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황이나 공의회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성서만이 믿음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성서 이외에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온 교리 또한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로마 교황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루터는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으며, 교황의 지위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교황은 사악한 가르침과 나쁜 생활모습을 통해 전 그리스도 세계를 황폐하게 하였으며, 부패하게 하였다. 이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교황청과 교황 자신의 인간성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질곡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¹³⁾

라이프찌히 논쟁 이후 교회와 제국의 폐해를 고발한 루터의 영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교황의 사절인 알레안더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 독일이 반란 속에 휩싸여 있다.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루터를 소리쳐 외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비록 루터에 무관심하더라도 로마 교황청의 폐쇄를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공의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¹⁴⁾

루터는 점차 로마교회와 대립하게 되었다. 1520년 6월 15일 교황의

13) *Deutsche Reichstagsakten*, Jüngere Reihe 2, Göttingen 1962, S. 553.

14) Aleander in einem Brief am 8. 2. 1521, in : H. v. Jedin (Hrsg.), *Handbuch der Kirchengeschichte*. Bd. IV. Herder Verlag, Freiburg, 1967, S. 77.

칙서가 비텐베르크에 전달되었다. 그 칙서에서 교황은 루터의 저술들을 탄핵하고 소각할 것을 명하였다. 루터에게는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명하였으며, 루터를 파문한다고 선언하였다.

루터는 과거 이단자들이 행한 방식대로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세속적인 자만심에 명성만을 추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필요 이상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이다.……루터는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성스러운 로마 교회에 대하여 사랑이나 경외감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으며 교회의 규율과 복종을 위반한 인물이다. ……15)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파문칙서를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은 교황의 전횡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황의 권한은 제국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적 생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이런 반그리스도적인 제국에서 있기보다는 차라리 사막에서 사는 편이 훨씬 낫다.16)

루터에게 비록 파문이 내려지고 루터가 반로마적 저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당시 이교도에 대해 행해지던 화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의 정치구조에 그 원인이 있었다. 교황은 당시 루터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작센 주의 선제후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제후는 막시밀리안(Maximilian) 황제가 사망한 후 또 다시 합스부르크 가에서 황제가 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한편, 교황 레오 10세(Leo X)는 당시 합스부르크 가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

15) *Religion und Weltanschauung*, 8, Jg., Heft5, 1953.

16) *Martin Luthers Werke*, Weimarer Ausgabe, Bd. 7, S. 186.

둘러싸여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교황은 작센 주 선제후의 도움으로 합스부르크 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따라서 루터의 개혁 운동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루터를 추기경에 임명하겠다는 제의까지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519년 6월 합스부르크가의 카알 5세가 황제로 선출되었다. 황제에 선출된 카알 5세는 가톨릭에 충실한 합스부르크 출신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루터 문제를 처리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었다. 1521년 4월 19일 카알 5세는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황제요, 스페인의 왕이며,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자 부르군드의 공작 출신으로, 충실한 가톨릭 가문 소속이다. ……때문에 나는 결정하였노라, 나의 선조와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행해 왔던 대로 따를 것이다.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그리스도인을 거역한다는 것은 한 수도승(루터)의 분명한 잘못이다. ……따라서 나는 결정하였도다, 이 잘못을 바로잡는 데 나의 제국과 나의 모든 힘, 나의 몸과 피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바치겠노라.¹⁷⁾

당시의 법에 따르면 교회로부터 파문을 선고받은 즉시 심문 과정을 걸쳐 제국에서의 추방조치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황제는 루터에 대한 심문을 위해 제국의회를 소집하였다. 1521년 보름스(Worms)에서 제국의회가 소집되었고, 루터도 참석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루터가 보름스로 향하는 연도에서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루터는 제국의회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신학적 논쟁을 기대하면서 보름스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였다. 제국의회는 단지 루터가 자신의 서적과 저술 내용을 철회할 것인지만을 물었다. 그러자 루터는 하루의 생각할 시간을 요구하고 나서, 곧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7) *Deutsche Reichstagsakten*, a. a. O., S. 594ff.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믿을 수 없다. 이들도 실수를 하며, 스스로 모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내 저술 내용을 인정하고, 분명한 이유로 인해 나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죄가 된다. 나의 양심은 오직 신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따라서 나는 그 무엇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양심에 거역되는 행동은 위험하며 고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이 나를 도울 것이다. 아멘!¹⁸⁾

한 달 후 보름스 칙령(Wormser Edikt)이 발표되면서 루터에 대한 제국추방령이 내려졌다. 그의 추종자에게도 추방이 결정되었다. 앞으로 누구도 루터의 저서를 읽을 수 없고, 보급하거나 인쇄할 수도 없도록 되었다.

너희에게 명령하노라.....마틴 루터를 은닉하거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그를 잡아서 일체 손대지 말고 우리에게 보내도록 하라.....모든 기사들은 루터의 책, 논문 등 일체의 기록을 모아 갈기갈기 찢어 불태우도록 하라.....이렇게 하여 이런 저서들이 품고 있는 독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인쇄 기술은 오직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하라.....앞으로 제국 내에서는 고위 성직자가 모르거나 그의 뜻에 어긋나는 그리스도 종교에 대한 인쇄를 금하며, 오직 부근 대학의 신학부에서 허가를 얻은 경우만 인쇄를 허락하노라.....¹⁹⁾

루터는 황제의 칙서를 기다리지 않고 보름스를 떠났다. 루터가 살던 지역의 영방군주인 작센의 선제후는 루터를 교황과 황제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제후는 외형상 루터를 습격한 것처럼 위장을 하

18) "Luther vor dem Reichstag", in : *Geschichtliche Quellenhefte mit Überblick*, a. a. O., S. 54.

19) *Deutsche Reichstagsakte*, a. a. O., S. 640ff.

고는 아이제나흐(Eisenach) 근교에 있는 바르트부르크(Wartburg)로 루터를 데리고 왔다. 사람들은 루터가 실종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바르트부르크에서 안정을 찾은 루터는 저술활동에 전념하였고, 또한 신약성서 번역에 착수하여 1534년 최초로 루터의 성서가 완성되었다. 루터는 이 곳에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수도승인 나는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나는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다.……이는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 속죄될 수 없다고 믿는다. ……나는 로마인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득차 있다.……정의로운 자는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산다. 나는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신의 정의로움을 그 자체로서 파악하고 신의 선물인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나는 지금 낙원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²⁰⁾

루터의 성서 번역이 끼친 영향에 대해 가톨릭 신학자 요한네스 콜호이스(Johannes Cholchäus)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서는 인쇄술을 통해 재단사, 구두수선공, 여성 그리고 다소 어수룩한 사람까지도 소지할 정도로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이들이 약간의 독일어를 배우면, 마치 지혜의 샘이 솟아오르듯 신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성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며 외우는 사람도 있었다. 몇 개월 만에 성서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쌓아, 가톨릭의 평신도뿐만 아니라 성직자나 수도승 심지어는 성서를 전공한 학자나 교수와의 토론에도 머뭇거리미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평신도나 개인뿐만 아니라 신학박사나 대학인과도 토론을 할 정도다.²¹⁾

20) P. Börger, *Quellen zur Geschichte der Reformation*, Quellen und Meyer, Heidelberg, 1953, S. 4f.

21) J. Cholchäus, *Historia Martini Lutheri*, Ingolstadt, 1582.

보름스의 칙령 발표는 결국 중세의 이단 처벌법에 따라 교회와 국가가 루터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루터의 개혁정신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고,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개혁은 이제 정치·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이로써 종교개혁은 제2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모든 수도원의 성직자나 수도승이 루터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국민들은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그들은 오직 교황의 간섭과 침해에 대해 복수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지금 독일은 커다란 소요 속에 있다.……매일같이 루터의 저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작센의 선제후가 비밀스럽게 이 운동을 부추기고 있으며 모든 영주들이 교황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로마 교황청]는 어쩔 도리가 없다.²²⁾

3. 루터의 개혁사상

루터는 면죄부의 남용에 대해 마인쯔 주교에게 항의를 하고, 이어 1517년 10월에는 라틴어로 된 95개조의 반박문²³⁾을 발표하면서 면죄부와 속죄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였다. 이 반박문은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전 독일에 전파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기존 교회와의 충돌은 순간적인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루터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신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음을 확신하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는 “내가 신의 자애로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신의 구원을 받을 수

22) P. Kalkoff, *Die Depeschen des Nuntis Aleander vom Wormser Reichstag 1521*, Halle, 1897, S. 44ff., 69f., 71f.

23) K. v. Aland (Hrsg.), *Luther Deutsch 2*, Göttingen, 1981.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등의 물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의 체험을 직접 소개하면서,

나는 여기서 정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듣고, 신의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만일 우리가 정의로운 자로서 믿음을 토대로 살면서, 신의 정의로움이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쌓은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의 자애로움 때문이다. 이로써 나의 마음은 위로를 받게 된다.……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정의롭게 되고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성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루터는 자신의 기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성서를 그리스도교의 중심으로 삼았다. 복음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체휼해야 한다고 믿었다. 학자의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 오직 성서만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없고, 또한 자신의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속죄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동시에 그는 신은 신의 정의로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루터는 종교생활의 외형적인 면, 예를 들면 성지순례, 교회축성, 면죄부 등이 참되고 본질적인 믿음을 방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선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모든 신자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직자 신분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 특별한 성직자의 임명이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교회의 일을 담당할 성직자는 그가 관할하게 될 지역에서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종교의 외적 의식을 거부하는 루터는 구체적으로 기존의

24) Luther, *Tischreden* 3, Nr. 3232c.

聖事(세례, 견진, 성체, 고백, 병자, 신품, 혼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세례, 고백, 성찬만을 인정하였다. 그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우며 신앙 문제에 있어 교황에 종속되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이상과 같은 루터의 신학적 주장은 1520년 자신이 저술한 세 권의 책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먼저 『독일의 그리스도 귀족에게』에서 루터는 만인 사제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교황, 주교, 성직자, 수도승을 사제자라고 부른다. 영주, 군주, 농부, 수공업자는 세속적 신분이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사제자다. 이들 간에는 차이가 없다.……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성직자가 된다.……교황을 지지하는 자들은 성서에 해박한 자만이 성직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직자다. 그럼에도 올바른 믿음과 그렇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어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단 말인가.……25)

이 글에서 루터는 사람에게 관리, 상인, 농부 혹은 노동자 등 직책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모두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司祭이며, 평신도나 성직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으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하인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신적 특성과 육체적인 특성을 갖는다.……따라서 성직자나 사제처럼 육체가 성스러운 옷을 걸친다 해도 우리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기도나 단식, 순례 그리고 모든 선행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가

25) *Luthers Werke*, a. a. O., Bd. 6, S. 407f., 411f.

져다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우리의 영혼이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다른 것은 일체 필요하지 않다.……26)

이 글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음의 상호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종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루터는 사람에게에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이중의 본성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영적이고 내적인 자유자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이므로, 이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유롭게 된 자는 만물의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가 영적으로는 무한히 자유롭고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그는 역시 현세적이고 외적이고 肉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과 정욕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며, 이웃과의 만남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의 이웃에 대하여 기쁜 마음과 자발적인 태도로 선행을 행해야 하며, 언제나 기도와 봉사와 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루터는 자신의 저서 『교회의 바빌론 유수』에서 교회가 교리와 의식에 억압되어 영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지나친 형식주의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특히 일곱 가지의 聖事 가운데 세 가지(세례·성찬·고백)만이 성서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

26) *Luthers Werke*, a. a. O., Bd. 7, S. 21f.

였다.

4. 종교개혁의 영향

1) 루터와 휴머니스트

1520년까지 루터의 개혁을 지지한 사람은 주로 휴머니스트들이었다. 휴머니스트들은 루터를 교회개혁의 선봉자로 환영하였고, 또한 스콜라 신학에 맞서 싸우는 동지로 받아들였다. 젊은 설교사들은 도시 곳곳을 다니며 신교의 설법을 전파하였고, 이에 따라 도처에서 신교의 교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항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는 교회개혁 문제에 대한 격론도 있었으며, 여기에 대규모의 청중이 운집하였고, 시위와 각종 대규모 행사가 전개되었으며, 심지어 성상 파괴와 수도원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무력행위도 빈발하였다. 그러나 휴머니스트적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폭력과 교회 전복에는 냉담하였다. 특히, 에라스무스(Erasmus von Rotterdam)는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개혁운동을 천민적 정치행위이자, 혁명적 책동이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많은 인문주의자들은 과거 교회와의 완전한 결별을 두려워하면서, 루터의 개혁적 내용들이 폭동과 소요를 야기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루터와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2) 기사의 봉기

제국의 여러 신분 계층 가운데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장 열성적으로 동참했던 신분은 하급 귀족인 기사계층이었다. 루터의 개혁은 몰락 위기에 처한 기사계급에게 종교개혁의 관철이라는 새로운 사명감을 복돋워 주었다. 물론 기사계급이 모두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522~1523년 지킹엔(F. v. Sickingen) 폭동에서 보듯이, 기사계급의 움직임은 파괴적이었다. 라인 북부지역의 귀족 신분 가운데서도 지킹엔은 영주와 도시국가에 저항하는 선봉장이 되었다. ‘복음을 널리 전파’²⁷⁾하려는 목적으로 지킹엔은 트리어의 선제후에게 도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환속 조치를 통해 종교개혁을 급진적으로 이루려는 이들의 계획은 영방영주의 저항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기사계급의 종교개혁 참여가 주춤하게 되었다.

3) 도시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운동은 도시의 평민계층에서도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수년 간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던 도시의 3/4 정도가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시는 당시 교육과 출판 그리고 휴머니즘의 중심지였다. 1525년 초까지 브레멘(Bremen), 막테부르크(Magdeburg), 브레스라우(Breslau), 뉘른베르크(Nürnberg), 콘스탄쯔(Konstanz),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 취리히(Zürich)와 같은 제국 도시들이 이미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던 종교개혁이 동일한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특정 명문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뉘른베르크와 같은 도시에서는 評議會(Rat)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다(평의회 중심의 종교개혁 : Ratsreformation).²⁸⁾ 그리고 길드 조직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그 지방 교회가(Gemeinde)가 스스로 광범위한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다(교구중심의 종교개혁 : Gemeindereformatin).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 평의회가 중심이 되었는가 아니면 지방 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는가를 정확히

27) Fuchs, *Das Zeitalter der Reformation*, München, 1973, S. 111.

28) W. Becker, *Reformation und Revolution*, München, 1974.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도시의 종교개혁운동은 대개의 경우 敎區人(der Gemmeine Mann)²⁹⁾이 중심이 되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교구인이 종교개혁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개혁운동이 '아래로부터 위로'³⁰⁾ 발전해 갔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계급에 의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시민계급의 심리적 성향과 루터의 주장이 부합되었음을 우선적으로 지목할 수 있다. 루터는 복음의 전파를 중시하여, 일반인에게도 신과 만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적 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제시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던 성직자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계급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가 개혁의 중심이자, 종교의 중심이라는 루터의 주장이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교리를 판단하고 성직자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³¹⁾를 갖도록 하자는 루터의 요구가 시민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4) 종교개혁과 농촌

도시보다 약간 늦었지만, 지방에서도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갔다. 루터가 교회의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기존의 체제가

29) P. Blickle, *Gemeindereformation*, München, 1985.

30) H. Schilling, "Die politische Elite der nordwestdeutschen Städte in den religiösen Auseinandersetzung des 16. Jahrhunderts", in : W.J. Mommsen (Hrsg.), *Stadtbürgertum und Adel in der Reformation*, Stuttgart, 1979, S. 235~307 ; B.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Gütersloh, 1987.

31) M. Luther, *Ausgewählte Schriften*, K. v. Steck (Hrsg.), Frankfurt/M., 1983. S. 162.

흔들리게 되었다. 이제 농민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목적을 위해 대규모 집단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성직자를 직접 선출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파한다는 개혁의 기본 원칙은 농민들에 의한 자치의 노력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게 되었다.

농민전쟁은 지배계층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법적·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공통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악화된 생활조건을 극복하고, 부역과 조세의 가중에 저항하며, 삼림과 목초지 사용권, 사냥과 어업권의 박탈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정치적·사회적 질서를 신의 정의에 부합되게 하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발생한 혁명적 봉기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농민의 저항과 종교개혁운동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루터는 교회의 개혁에서 일반 평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또한 영주나 군주의 독재와 학대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1523년 루터가 영주들에게 쓴 글을 보면,

그대들의 전횡과 경박한 행동을 더 이상 누구도 참을 수 없고, 참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주와 군주께서는 이러한 그대들의 행동을 신이 결코 원치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그대들이 사람들을 야수처럼 내몰았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대들의 범법 행위와 무력 행위를 중단하십시오!³²⁾

그러나 1522년 농민들이 무력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자, 루터 자신은 신의 말씀을 무력으로 강요하거나, ‘아래로부터’ 관철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는 오직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종교개혁을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어떤 시

32) Luther, "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in: *Handbuch der Kirchengeschichte*, H. v. Jedin (Hrsg.), Bd. IV, Herder Verlag, Freiburg, 1967, S. 141.

도도 강력히 거부하였다. 국가권력과의 갈등에서 정의로운 심판자로 추앙받던 루터는 평화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그의 이러한 호소가 반향을 얻지 못하자, 농민전쟁을 무자비하게라도 강력 진압하라고 영방군주에게 충고를 하게 되었다.

5) 영방교회의 성립

루터가 결국 농민전쟁을 진압한 군주의 편에 서게 됨에 따라, 농민전쟁이 진압된 후 영방 내에서는 개신교 세력과 영방군주가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교회를 지방의 자율적 힘으로 개혁하려는 초기의 목표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영방교회(Landeskirche)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방군주가 주교(Notbischof)의 지위까지 차지함으로써 관할 지역의 교회에 관한 모든 일을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영방군주들은 이를 계기로 교회의 재산에 대한 환속 조치를 취하고, 영방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1525년 루터는 영방군주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영방군주는 믿음과 복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영방군주는 외부의 위협을 제압한다.³³⁾

이는 결국 종교적 양심의 자유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교회를 정비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영방군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33) H. Lutz, *Das Ringen um deutsche Einheit und kirchliche Erneuerung*, Berlin, 1983, S. 252.

5.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

1) 종교계의 입장

흔히 종교개혁을 논할 때, 특히 그 운동이 후세에 남긴 여러 가지 영향과 의미 등을 말한다.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에 만연되고 있던 폐단의 극복과 교리의 편협성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석, 유럽인의 정신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순간이었다는 평가 그리고 민족교회의 성립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초래된 부산물이자 자연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 자체가 종교개혁의 본질이나 본래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천 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절대주의 밑에서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까지도 좌우되어 왔었기 때문에, 종교부흥운동을 말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외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 권위주의적인 교황 및 부패한 성직자들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야말로 종교의 암흑시대였으며, 이에 대한 극복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다. 이런 가운데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바로 종교의 부흥운동이었다고 기독교 측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이 교회의 내적 개혁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이 그 참된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⁴⁾

한편,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먼저 그리스도교를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양분시켜 위기 상황을 조장한 인물로 루터를 평가하고 있다. 가톨릭의 입장을 요약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톨릭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수긍하고 있다. 아울러 루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성서에 부합되는 종교관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하

34) *Grundriß der Kirchengeschichte*, Göttingen, 9. Aufl. 1979, S. 271~274.

지만, 루터 자신은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종교개혁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지, 루터 개인의 위대함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루터는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많은 문제들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가톨릭 측은 주장한다. 종교개혁은 일종의 혁명이었으며, 이 혁명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많은 갈등 요인을 새로이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또한 루터가 종교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철학적·심리적·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뜻이 모호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가톨릭이 루터에 대한 비난을 남용한 점이 있다고 자성도 하고 있다. 즉, 루터의 파문과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두 종파의 교류와 제휴를 거부하려는 가톨릭의 강경 자세는 그리스도교 전체로 보아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³⁵⁾

2) 역사가의 입장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가의 입장은 크게 양분되어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려는 역사학자가 많은 편이며, 또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유보한 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도 있다. 한편, 과거 동독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해석도 흥미롭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긍정적 평가

35) *Luthers Glaube : die Sache des Evangeliums in der Kirche*, Stuttgart, 1982, S. 9ff.

19세기 역사학자인 베졸트(F. v. Bezold)에 따르면 종교개혁은 우선 영방군주가 왕정세력과 민주세력에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지만, 당시 몰락해 가고 있던 국민이 택한 '위대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한편 베졸트는 종교개혁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미래 독일에 커다란 결실을 남겨 주었다.……독일 프로테스탄트로부터 우리 민족은 오늘날의 문화와 민족국가가 성장할 수 있었다. 루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칸트나 괴테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며, 프로이센 국가가 프로테스탄트와 反帝 전통을 이어받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새로운 독일제국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³⁶⁾

한편, 랑케(L. v. Ranke)는 종교개혁이 그리스도교가 세계적 종교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극찬을 하였다.

칼리프는 종교와 정치를 한 손에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에 비하여 유럽의 그리스도는 교회와 국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었다. 바로 이런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유롭고 심오한 정신적 운동이 발현되었다.³⁷⁾

즉, 독일의 종교개혁이 그리스도교를 순수한 모습으로 개혁함으로써, 독일은 유럽과 전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범세계적 종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이 전제되었어야 하는데, 루터에 의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 마침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36) F. v. Bezold, *Geschichte der deutschen Reformation*, Berlin, 1890, S. 872.

37) L. v. Ranke, *Deutsche Geschichte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ed. P. Joachimsen, 6 Bde., München, 1925/26, S. 1ff.

38) L. v. Ranke, *ebd.*, S. 1, 176.

한편 베버(Max Weber)와 트뢴치(Ernst Troeltsch)는 종교개혁의 문화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특히, 베버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였고,³⁹⁾ 트뢴치는 지역 교회의 전통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⁴⁰⁾ 이들은 프로테스탄티즘의 형성으로 종파의 분열이 일어났고, 이 분열은 창조적 세력을 기존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터(G Ritter)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정신사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대규모 국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독일 역사상 모든 신분계층과 지역이 결집하여 대규모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킨 유례가 없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독일인의 생활이 분열되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그 출발에서부터 독일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제국의 개혁을 관철하려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독일 국가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독일을 새로운 통일체로 만들려는 희망을 안고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다. 루터의 주장과 저서는 독일 지성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던 것이다. 또한 루터의 신학적 심오함은 이후 독일인의 세계관에 토대가 되었다.⁴¹⁾

(2) 부정적 평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 역사학자로는 얀센(J. Janssen)과 루츠(H. Lutz)가 있다. 먼저 얀센은 루터의 정치적·종

39) G. Hübinge, "Max Weber und die historische Kulturwissenschaft", in : N. Hammerstein (Hrsg.), *Geschichtswissenschaft um 1900*, Wiesbaden /München, 1988, S. 269~281.

40) T. Rendtorff, F.W. Graf (Hrsg.), *Die Sozialenlehren von E. Troeltsch im Lichte der gegenwärtigen Forschung*, Gütersloh, 1992.

41) *Die Neugestaltung Europas im 16. Jahrhundert*, 1950, S. 74, 83, 88.

교적 개혁으로 인해 모든 생활 영역이 쇠퇴하게 되었으며 유럽의 교회, 문화 그리고 자유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종교개혁의 유일한 승자는 영주와 군주뿐이라고 하였다.

군주가 정치·종교적 개혁을 떠맡게 된 이후, 일반 국민들은 복종과 고통 그리고 인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말하는 아우구스부르크 화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로운 고통의 출발이다.⁴²⁾

한편, 루츠(H. Lutz)는 교회의 통일과 권위 및 제국의 질서가 무너져 종교와 정치가 뒤섞여 참다운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함으로써, 종교개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루츠에 따르면,

교회의 통일, 교회가 갖는 경건함, 신학 그리고 제국의 질서가 루터에 의해 붕괴되었다.……종교개혁으로 인해 가톨릭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개혁의 물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속권력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16세기 교회의 붕괴는 전 유럽에 걸쳐 세속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밀착관계는 무지, 거짓, 권력욕, 사악함의 결과라고 혹평을 받게 되었다.……비단 무지와 권력욕뿐만 아니라 교황에 헌신하려는 태도로 인해 유럽인은 정치적 성격의 종교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어느 종파에 속하는가는 대개의 경우 과거 정치권력이 추진했던 종교정책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16세기 종교적 분열과 정치적 판단이 우리의 존재 모습을 결정하는 기본 조건이 되었다.⁴³⁾

42) J. Janssen, *Geschichte des deutschen Volkes seit dem Ausgang des Mittelalters*, 8Bde., Freiburg I. Br., 1878/94, S. 2, 723.

43) "Der politische und religiöse Aufbruch Europas im 16. Jahrhundert", in : *Propyläen Weltgeschichte* Bd. VII : *Von der Reformation zur Revolution* 1, Halbband Frankfurt, 1976, S. 131f.

(3) 기타

요하임젠스(P. Joachimsens)는 종교개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역설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라는 기본 정신을 토대로 시작되었다.……종교개혁은 국가를 중심으로 교회를 새로이 조직하고자 하였으며, 영방군주가 교회를 재건하는 모습으로 끝났다. 종교개혁은 그 발생 초기에는 종교·정치·사회적 개혁 육구가 종합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종교의 변화로 그 일단의 막을 내렸다.……(따라서) 1517년에 시작된 양 종파 간의 대화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화는 한 어머니를 둔 형제 간의 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조국과 민족이라는 공통된 토양 위에 싹터야 할 것이다.44)

한편, 2차대전 이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논하는 학자들이 구동독에서 많이 나타났다. 종교개혁을 '시민계급의 혁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는 15세기 후반의 농민봉기를 출발로 해서 루터에 의한 대중운동과 농민전쟁에 걸쳐 캘빈주의와 영국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 발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중세의 봉건제도가 초기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계급과 계층은 사회적 차별을 겪게 되었으며, 생활환경이 불안해졌고 귀족과 농민이 상인과 고리대금업자에 종속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초기 자본주의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봉건영주에 의한 농민의 착취가 극에 달하게 되어 마침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황청이 가장 강한 봉건영주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44) P. Joachimsens, *Die Reformation in Deutschland*, 2 Bde., 4 Aufl. Freiburg I. Br. 1962, S. 17f., 24.

있었다. 루터는 봉건제도의 중심체였던 로마 교회에 맞서 저항을 하였고, 이 저항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카알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루터를 개혁의 선봉자로 칭송하였으며, 또한 종교개혁을 유럽의 시민계급이 봉건제에 저항하는 최초의 투쟁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엥겔스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민계급에 의한 최초의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았고, 이를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발전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⁴⁵⁾

맺음말

앞에서도 말했듯이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 이후 유럽 전반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종교적 측면 외에도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종교개혁이 종교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시 시대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은 루터 자신의 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즉, 어느 누구도 종교전쟁과 종파의 분열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도 아니고 미리 계획하지도 않은 채, 주위 사정에 의해 나는 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⁴⁶⁾

그러나 비록 개혁론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까지 종교개혁이 확산되었지만, 그 모든 변화 과정은 루터의 개혁사상에 뿌리를 두고, 이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모든 연구

45) *epd Dokumentation, Thesen über Martin Luther, Nr. 43 b/81*, Evangelischer Pressdienst Frankfurt, 1981, S. 1, 2, 11.

46) "An den frommen Leser, 1545", in : M. Luther, *Ausgewählte Schriften*, a. a. O., S. 32.

는—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의미와 영향,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계, 농민전쟁과 종교개혁의 연관성, 종교개혁의 정치·사회적 관계—루터의 기본 정신과 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당시의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사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종교개혁의 실상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글도 제한된 사료를 통해 간략하게 보았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